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시스템 구축한 충북 충주 법현농장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에 위치한 법현농장 전경

취재 : 정재은

법현농장(대표 이진석, 45세)은 양돈업을 생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통·소비 측면까지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직관장을 운영하고 있다. 철저한 소독 및 백신프로그램 적용, 기본에 충실한 관리와 세심한 관찰로 질병 없이 돼지를 키우고, 고품질의 돈육(보성녹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과학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보성녹돈'을 계열농가를 통해 전문화, 대형화하여 생산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에 주력하고, 직관장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결국 소비확대와 소득보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법현농장 현황 및 돈사구성

법현농장의 이진석 대표는 충주 출신으로 91년 양돈을 시작하였고, 96년 현재 위치해 있

는 충북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로 이주하였으며, 그 때 자금지원을 받아 축협이 GP 농장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모돈 1,200두 규모의 일괄농장과 종돈공급용 200두 농장 등 전체사육두수 18,000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9개 계열농가에 자돈 판매용을 위한 모돈 200두 농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총 20명의 직원이 농장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모돈사 3개동, 분만사 5개동, 자돈사 4개동(제1자돈사, 제2자돈사로 구분), 진천에 3,000두용 비육사로 구성되어 있다. 돈사는 전부 슬러리 돈사이며 무창돈사이다.

철저한 소독 및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 적용

법현농장은 철저한 소독 및 백신프로그램 적용, 기본에 충실한 관리와 세심한 관찰로 질병 없이 돼지를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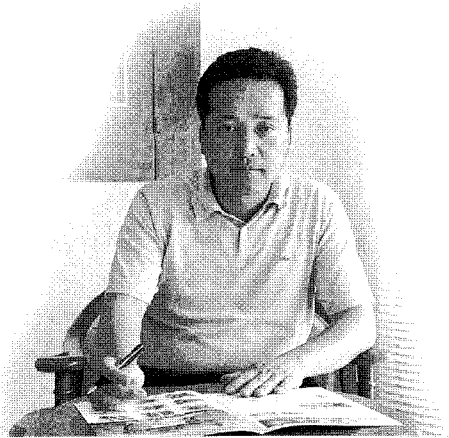
농장 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이 있어 차량 출입시 전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대인소독실이 있어 방문객 역시 농장 출입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농장 소독도 매일 빠짐없이 해나가고 있으며, 올인올아웃 시스템과 기본적으로 필요한 백신프로그램을 철저히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선한 사료 급여 및 물의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온도·습도·환기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영양, 급수, 환경관리 등 기본에 충실히 해나가고 있으며, 세심한 관찰을 통해 돼지를 보살피고 나가고 있다.

이진석 대표는 돼지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피며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맞춰 나가고 있다. “철저히 소독을 하고, 끊임 없는 관심 아래 기본에 충실한 영양·환경·사양관리를 해나가야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높은 생산성적과 A·B 등급 출현율을 유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현농장의 분만율은 87.2%, 모돈회전율은 2.53이고, 평균산자수 10.7두, 평균포유개시두수 9.8두, 평균이유두수 9.3두이며, PSY(분만기준) 24.8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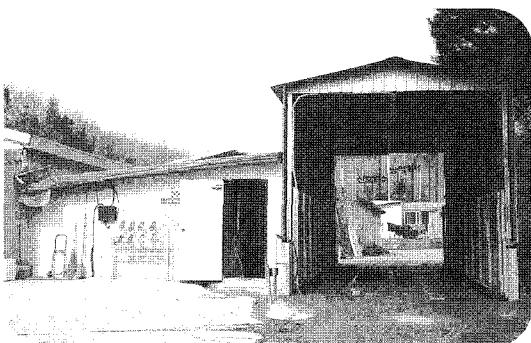


▲이진석 대표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돼지를 사육하고, 직판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 대표는 “사료, 종돈, 농장, 도축, 가공 등 전 단계에 걸친 위생 인증과 일원화된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돼지고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영업 노하우와 유통과정, 주변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패 없이 직판장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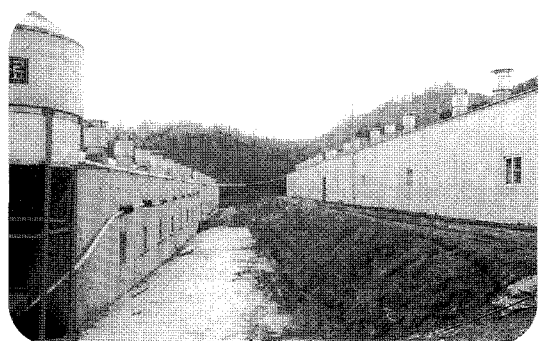
PSY(이유기준) 23.6두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월 2,700~2,800두로 연간 3만3천두를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일령 165일에 출하체중이 평균 106kg이고, A·B 등급 출현이 평균 83%에 이른다.

법현농장은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질병 발생이 거의 없으며, 그 결과 높은 생산성적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높은 A·B 등급 출현율을 유지해 나가고, ‘보성녹돈’이라는 고품질 돈육 브랜드 출하로 소득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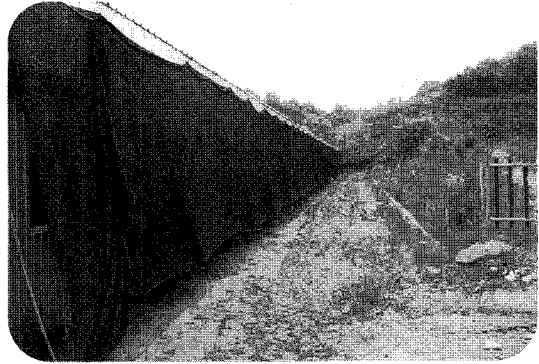
▲농장 출입구에 자동소독시설이 있어 차량 출입시 전부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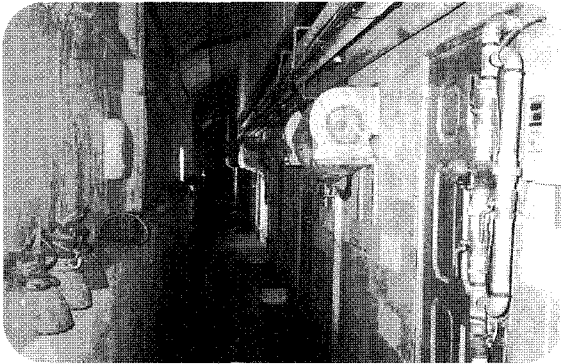
▲법현농장의 돈사는 전부 무창돈사이며 슬러리돈사로 되어 있다.



▲법현농장 자돈사 내부 모습.



▲여름에는 차광막을 설치함으로써 온도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분만사 복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돈방별로 발판소독조가 놓여 있다.

‘보성녹돈’ 브랜드 돈육 생산

법현농장은 안전하고 고품질의 돈육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지난 2000년부터 ‘보성녹돈’이라는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녹차추출물을 사료회사에 공급하면, 사료회사에서는 녹차추출물을 0.7%의 비율로 배합하여 만든 사료를 제공한다. 보통 출하하기 50~60일전부터 돼지에 먹이고 있다. 종돈과 사료는 물론 일령에 따른 사양 프로그램까지 통일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성녹돈’이라는 브랜드 돈육을 생산하고 있다. ‘보성녹돈’은 녹차의 약리작용에 따라 콜레스테롤, 지방, 누린내가 감소된 고품질의 돈육이다.

이처럼 법현농장은 사료 및 사양 프로그램 통일로 ‘보성녹돈’이라는 돈육을 생산하고 있으며, 브랜드화를 통해 지육률을 높게 받음으로써 수익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계열농가에서도 모두 ‘보성녹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판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돼지고기 직판장 ‘법현농장’ 운영

법현농장 이진석 대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돼지고기 직판장(충주터미널 앞에 위치)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작년 장기간의 저돈가 형성과 경기 하락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구책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전지, 후지, 목살, 등심, 안심, 갈비, 생삼겹 등 돼지고기 전 부위를 주변의 일반 판매점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출하된 돼지에서 선별한 품질이 보장된 보성녹돈이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한편 매장용은 가공, 포장, 진열하는 업무까지 직접 신경 쓰고 있으며 부위별로 냉장육, 냉동육, 양념육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 사육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



▲충주시내 충주터미널 앞에 위치한 돼지고기 직판장 '법현농장',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직접 사육한 위생적이고 고품질 돼지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직판장 '법현농장'에서는 전지, 후지, 목살, 등심, 안심, 갈비, 삼삼겹 등 돼지고기 전 부위를 주변의 일반 판매점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까지 모든 단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우수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양돈경영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하며, 지역 돼지가격 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질의 충주 한우고기도 판매하고 있다.

이진석 대표는 "앞으로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나가고 소매만 할 경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병원, 식당 등과 계약을 확대해 도매단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신 있게 돼지를 키워 판매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

이진석 대표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돼지를 사육하고, 직판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 대표는 "사료, 종돈, 농장, 도축, 가공 등 전 단계에 걸친 위생 인증과 일원화된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돼지고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영업 노하우와 유통과정, 주변환경 등을 정확

히 파악하는 능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실패 없이 직판장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부지를 따로 마련해 전문적으로 종돈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현농장은 자신 있게 돼지를 키우고, 생산자이지만 직판장을 통한 판매 활성화로 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직접 사육한 위생적이고 고품질 돼지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진석 대표(양돈자조금 관리위원)는 "추후 장기적인 입장에서 지역별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돈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이 배정되어 각 지역에서부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양돈**



▲법현농장 이진석 대표(우측)와 부인 윤유선씨.